

올 한전 빅스포, 지역민 축제 한마당으로



내일부터 취업박람회·특산물 장터 등 다양
빛가람센터 육성 창업기업 신기술 전시도

오는 6-8일 사흘 간 광주에서 열리는 '빅스포 2019'에서는 6년차를 맞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현 주소를 한전광대 추진까지 걸여온 길이 총망라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이 기간 동안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빅스포 2019'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를 연다.

4일 주관사 한전은 "지멘스, ABB, GE, 현대차, 효성중공업 등 참여기업 299개사가 확정됐으며 해외 6000명을 포함해 총 관람객이 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빛가람조정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50개 창업기업의 신기술이 전시되고 광주-전남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취업박람회·특산물 장터 등 지역상생=행사 기간 동안 열리는 '에너지밸리 일자

리박람회'에서는 광주-전남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취업 준비생 1000여 명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된다. '대호전기' '인셀' '더조은에너지' 등 20개 기업과 한전, 광주일자리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우수 인재를 만날 예정이다. 현장 채용관, 채용 상담관, 취업 지원관으로 구성된 박람회장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우수기업의 채용계획을 듣고 ▲취업 상담 ▲적성검사 ▲이력서 작성 등 취업을 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날 기회도 있다. 빅스포와 함께 진행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지난 달 8-23일 접수 받은 응모작품이 전시된다. 큰 주제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아이디어 제시'로 6-7일 작품이 전시된 뒤 8일 우수작을 선정·시상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테크니컬 투어'는 빅스포 국제컨퍼런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에너지밸리 혁신산업단지(에너지밸리)를 둘러볼 예정이다. 전국 에너지 전공 대학생 300명은 '대학생 테크니컬 투어'에 참가해 한전 주요 전력설비를 견학하고 지역문화를 탐방한다.

나주 혁신도시 초등생은 '어린이 초청투어'에 참가해 드론 제작 실습을 체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방문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는 광주·전남 특산물 장터를 사흘 간 열며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로 지역민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빅스포 이틀째인 7일 오후에는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빅스포 관람객과 지역주민을 초대하는 'KBS열린음악회'를 연다.

◇50개 스타트업 참여 '빛가람센터 홍보관'=행사장 1층 오픈홀에서 운영되는 '일자리창출홍보관'에서는 빛가람조정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50개 창업기업의 신기술을 소개한다. 전기차(6개), 전력저장(8개), 신재

생발전(4개), 전기설비(5개), 에너지솔루션(9개)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이 전시장에 채운다.

한전 사내벤처 4개사 등 스타트업 12개사가 참여하는 빛가람혁신센터 홍보관에서는 이들 기업이 걸어온 과정과 성과를 지도 형식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6-7일 홍보관에서는 산업은행 등 투자사와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투자경진대회'가 열리고 7일에는 이영숙 커피뷰는집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는 '캡코 테드'가 진행된다.

황광수 빛가람조정경제혁신센터장은 "올해 운영될 일자리창출홍보관은 전시와 관련된 무대 이벤트를 유기적으로 구성해 전시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 한국에서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빅스포 2018'은 해외 4420명을 포함한 8만1236명이 참가했으며, 21건의 양해각서 체결과 15억8000만 달러(1조8900억원)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30.24 (+30.04)	↑ 금리(국고채 3년)	1.55 (+0.08)
↑ 코스닥	668.45 (+6.11)	↓ 환율(USD)	1159.20 (-6.40)

아파트서 고품격 호텔 같은 삶 누린다

백운 대라수 어썸브릿지

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 수준의 품격과 호텔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 '백운 대라수 어썸브릿지'가 11월 찾아온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다호텔 자리에 들어서는 '백운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남구지역 내 최고 높인 36층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이며,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84㎡ 단일평형으로 4베이 특화설계(일부타입 제외)를 적용해 채광·통풍에 유리한 생활 공간을 연출한다.

특히 2개 동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광주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뷰가 눈길을 끈다. 광주 최초 하늘을 잇는 듯한 느낌을 주는 스브릿지, 스카이 루프라운지를 설계해 광주 야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최상층에 카페 라운지, 헬스코트 등 차별화된 특화 커뮤니티를 조성해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품격 생활 옵션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항공 및 보온 효과가 탁월한 친환경 황토공법과 이웃 간 층간 소음을 예방하는 층간 소음 방지재 시공 등 설계·시공에 공을 들였다. 기존 단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신발살균기, 욕실 치아세정기, 주방 블루투스 스피커 설치로 차별성을 더했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구축한 단지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입주민 맞춤형 최첨단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인근에 무등시장, 롯데마트·아울렛, 월드컵경기장, 영주체육관, 남구청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광주기독교병원·전남대병원도 가깝다.

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 환승센터가 예정돼 있고, 서대문로와 대남대로가 인접해 광주 시내 어디든 이동이 편리하다. 또 백운초, 대성초, 서광중, 석산고, 수피아여중·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광주 남구 명문학군으로 불리는 곳과 봉선동 학원기도 가까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서구 북촌길 12에 마련됐다. /백희준 기자 jwpark@

광주은행,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전남인재육성재단에 5천만원
10년간 2억8000만원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원목 세번째)은 4일 오전 전라남도청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김영록 도지사 등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10

년간(제) 전남인재육성재단에 2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인재육성에 힘쓰며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1년에 설립한 광주은행 장학회는 올해까지 38년 동안 41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2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명실상부한 광주·전남 최고의 장학사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의,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설명회

오늘 제조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기업들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오후 2시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주·전남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편

전략과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익택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 재편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또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개정법'의 적용 요건과 신청·승인방법, 금융, 연구개발(R&D), 세계 지원 등을 안내하고, 기업별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으로 회사 합병·분할·설립, 주주의 이전·취득·소유, 신사업 진출, 신제품·신기술 개발, 사업 효율화 등 선제적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정부 R&D 지원사업의 가정부여와 기술료 납부가 유예된다. 산업융자 처분 시에는 시장가격 매각 허용 등 금융·

R&D, 세계 등의 혜택도 제공 받는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된다. 지난 8월 법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 지역 기업까지 포함시켰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과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사업 활로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jwpark@kwangju.co.kr

'14일 수능' 증시 개·폐장 1시간씩 늦춰

개장 10시·폐장 4시반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4일 국내 증시 개장과 폐장이 1시간씩 늦춰진다.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거래 시작과 종료 시점을 1시간씩 늦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들 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이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바뀐다.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도 각각 거래시간이 1시간씩 순연된다.

장 종료 후 시간 외 단일개 매매와 시간 외 대량매매의 경우는 거래 개시 시

점이 1시간 늦춰지지만,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그대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식 및 금리상품은 개장과 장 종료 시각을 1시간씩 순연하고, 통화상품 및 금 선물은 개장 시간만 1시간 연기한다. 선물은 거래시간에 변경이 없다.

코스피200선물, 미국물리선물을 거래하는 야간시장은 개장만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로 1시간 미루고 종료 시각은 기존과 동일하다.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KSM 거래시간은 증권시장과 똑같이 1시간씩 순연하고 금 시장은 개장만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한다.

석유시장과 배출권시장의 거래시간은 변동이 없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